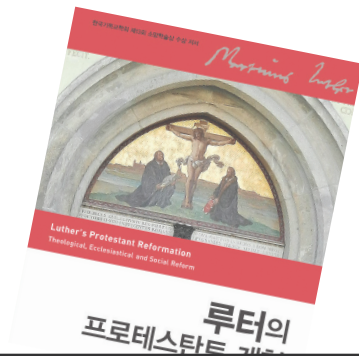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3년 주님의교회 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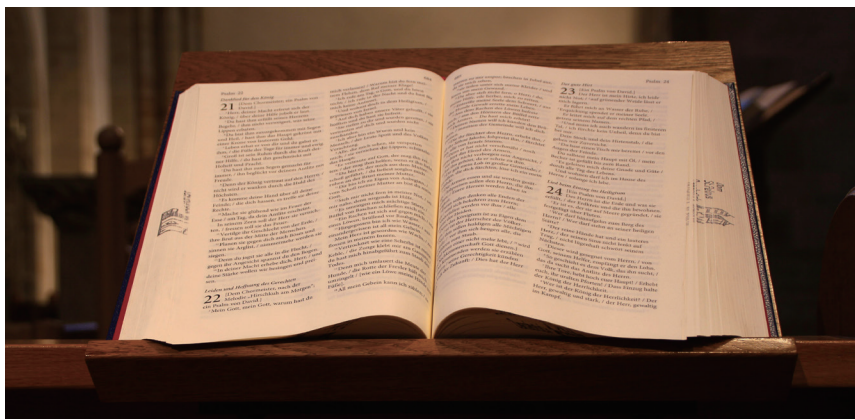
474
2023.10.29.

오늘의 말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갇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갇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_열왕기상 8:37-39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2 | 하나님 백성의 선교 요약 | 7 | 선교찬양축제 / 늘푸른대학 |
| 3 | 종교개혁 이야기 | 8 | 산상수훈후기 / 목사안수소감 |
| 4 | 국내선교 / 군선교 | 9 | 겨자씨이야기 / 교사일기 |
| 5 | 아름다운부모학교 | 10 | 교회사용설명서 |
| 6 | 수험생부모 신앙간증 | 11 | 십자말씀이(시편) |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종교의 구분으로 보자면 우리는 “개신교”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위키백과에 따르면 “개신교”란 16세기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인 교회의 개혁가들의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기독교의 한 전통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초기인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합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교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중세교회와는 달리 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생각하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심을 고백하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 책소개 시리즈
하나님 백성의 선교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

지난 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열방에 복이 되길 원하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5장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에서 선택받은 아브람이 어떻게 세상의 복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8:18-19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75세 때 아브람을 그분의 복으로 이루는 선교 사역에 콜링하신 하나님은 그가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약속을 확인시켜주십니다. 18절을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복이 되고’, ‘세상에 복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이루려하시는데,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람을 선택하심과 이후에 복(약속) 사이에 아브라함 가족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요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셨고 ->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택하시고 -> 윤리적 삶을 살길 원하시며 -> 그 안에서 복이 되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보통 ‘의’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곧다’입니다. 바르게 서다. 고정되어 있고,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갖추다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한 의, 도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광범위한 법적 활동을 뜻합니다. 바로잡다. 상황에 개입하여 고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수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곧게 서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떠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세상으로 가서 상황에 개입하여 바로잡고 수고를 감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윤리적 성품으로 서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곧 선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라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열방에 복을 가져다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윤리생활과 하나님의 선교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히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재확신과 윤리로서의 사명을 주실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소돔’이라는 지역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내사를 진행하시는 상황입니다. 바벨탑 이후 흩어진 인류가 더욱 썩어가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의와 공도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기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역

사적 심판을 이루며 죄악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때에 의와 공도로 만민에게 복을 주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글한 단락을 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살 때, 인도 복음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인도라는 나라의 상태나 힌두교의 저항이 아니라 교회의 상태라고 인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셨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여전히 소돔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을 부르셔서 다른 존재가 되도록, 다른 기준에 따라 살도록, 결함이 있는 열방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자주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르침, 곧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는 피할 수 없는 윤리적 차원이 있다.** 이는 결코 단순히 나와 나의 양심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야웨의 도를 행하지 못하거나 진실, 정직, 정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열방에 복을 가져다주는 백성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세우고, 뺏어가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에 큰 메시지를 가져다줍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듯이,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의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세상이 잘 지키지 않고 무관심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윤리적 삶으로 소돔과 같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함줄함울



종교개혁이야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800년경 교황 레오 3세 때 처음 시작된 면죄부가 루터 시대의 로마가톨릭교회 교황 레오 10세 때는 발행이 크게 늘었다. 로마가톨릭교회에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은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면죄부였는데 성베드로성당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면죄부를 남발하였고 결국 루터의 반발로 종교 개혁을 야기하는 촉매가 되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를 항의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95개조 반박문 전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함줄함울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마 4:17)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3.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inner repentance)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4. 죄에 대한 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여도, 즉 참된 내적 회개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된다.
8. 속죄의 법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그 법에 따라, 죽은 자의 죄가 사하여질 수는 없다.
14. 죽어가는 사람에 있어서 불완전한 경건이나 사랑은 반드시 커다란 불안을 수반한다.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두려움은 더욱 크다.
21.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27. 돈이 연보궤에 찔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28. 돈이 연보궤에 찔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30. 누구도 자신의 회개의 완전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더군다나 속죄의 완전성 여부는 더욱 더 확신할 수 없다.
32. 면죄부를 사므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34. 왜냐하면, 그 사면의 은혜는 오로지 인간이 설정한 성례의식에 대한 벌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6.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37.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았든 죽었든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과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40.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 값을 달게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면죄부는 벌을 가볍게 하려는 것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벌 받기 싫어하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는 벌 받기를 싫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43. 그리스도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44. 사랑은 행함으로써 더욱 커지고, 인간은 이를 통해서 더욱 선해지나, 면죄부를 통해서 인간이 선해질 수 없고 단지 벌을 면할 뿐이기 때문이다.
45.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이를 지나치며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46. 그리스도인들은 생계의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충분히 저축하여야 하며, 결코 이를 면죄부에 낭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8.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이 면죄해주는 데 있어서는 돈보다 경건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9.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의 면죄부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에만 유용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한다면 매우 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55. 극히 무의미한 것인 면죄부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문으로 표현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인 복음은 백 단어, 백 문장, 백 개의 구문으로 설교되어야 한다.
57. 면죄부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많은 면죄부 판매자들이 이를 마음대로 나누어 주기보다는 이를 굶어모을 뿐이기 때문이다.
60.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가 바로 보물이라는 우리의 말은 충분히 속고한 결과이다.
62.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68.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신앙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무의미한 은혜에 불과하다.
76. 우리의 주장은 정반대로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87. 또, "이미 전적인 회개를 통해 완전한 구속과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 교황은 또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축복하겠다는 것인가?"
92.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라, 평안하라"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레 6:14)
93.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94.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형벌, 죽음 그리고 지옥을 거치면서 부지런히 따르도록 교훈되어야 한다.
95.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행 14:22)

하나님의 선교 실천
봉사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소망공동체, 천안 하늘씨앗교회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도시교회선교부 13명의 봉사자와 전문선교 분과위원회 이미용부 10명의 봉사자는 10월 12일(목) 아침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천안 하늘씨앗교회에 급식봉사와 미용봉사를 다녀왔다. 천안 하늘씨앗교회는 매일 100여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는 삼계탕을 끓여 나누어 드린다. 300개의 삼

계탕을 끓여 원하는 분들에게 두 개이상 삼계탕을 나누어 드렸다. 도시교회 선교부에서는 천안 하늘씨앗교회에서 직접 재배를 한 무로 무생채를 만들어 삼계탕과 함께 드렸으며 이미용부는 머리세발과 파마를 해드렸다. 천안 하늘씨앗교회는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소망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다.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 실천
군선교

세례를 결심한 백여 명의 용사들

그 옛날 7세기에 네스토리우스 선교사들은 '경교(景敎)'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들어와 선교를 위해 변발(辮髮)을 하고 현지인들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녹아들어 복음을 전했다. 현실에 뿌리내린 이들의 사역은 별이 필요한 민초들에게 빛(景)되신 그리스도를 비추었다. 이들에 대한 신앙의 평가는 의견이 분분하나,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래된 것만은 분명하다.

선교 현장 대부분 그렇지만, 군 선교의 현장은 이런 네스토리우스 정신이 철저히 요구되는 곳이다. 장병과 부대를 섬기기에 앞서 그들의 문화에 깊숙이 녹아져야만 비로소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복장부터 언어, 제도에 이르기까지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군 선교는 참 이상적인 선교 현장이다. 생활의 터전과 교회가 맞닿아 있는 곳. 이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지 않아도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현장이 군대가 아닌가.

얼마 전 주님의교회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이곳 최전방에 위치한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주셨다. 이날 백여 명의 용사들이 세례를 결심했다.

낙심했던 이들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마음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예배하는 내내 장병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당장 현역이라 해도 손색없는(?)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와, 한 영혼 한 영혼을 환영하고 마음 다해 축복해주는 교우님들의 따뜻한 온기가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자세히 묻지 않아도 이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하진지 다들 아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군 선교는 큰 경험과 노하우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지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군 선교가 예년 같지 않다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군 선교만 한 현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군 선교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신병교육대'라는 관문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다. 이곳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붙잡을 수도 있고,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곳이 이곳이다. 군복들과 군선교사들이 있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일일이 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주님의교회와 함께한 세례식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기도한다.

이신영 목사 / 7사단



가정사역원
아름다운부모학교

나는 기독교학부모입니다.

23.9.7-10.19 6주간의 아름다운 부모학교 6기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지만 퇴근 후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여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 위에 크리스천 부모로서 깊이 고민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가정사역원 아름다운부모학교



아름다운부모학교
수료소감

기독교학부모로서 다시 설 수 있는 시간

안녕하세요? 이번 6기 아름다운 부모교육을 수료한 강가영 집사입니다. 먼저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른 기독교학부모의 길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춘기의 한가운데에서 책임과 의무는 없이 자신의 권리만을 만끽(?)하고 있는 중3 아들과 감성적인 초등4 아들을 둔 워킹맘 엄마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춘기에 폭 빠진 아들과 서로의 마음에 상처주고 후회하는 일들을 반복하며, 교회와 가정에서의 다른 이중적인 저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감정싸움으로 너무 지쳐가고 있었던 차에 귀한 교육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참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아이들을 선택하셔서 부모-자녀로서 만나게 하신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재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과 "은사"라는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동안 무의식중에 의식했던 세상의 시선과 불안감에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 먼저 자녀양육에 있어 오래 참음과 자비의 은사를 훈련할 것을 굳세게 다짐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제가 이런 부모교육을 들으면 제가 더 친절해진다고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계속 구하고 끊기지 않도록 더욱 우리 자녀와 그의 친구들, 교사, 학교, 교육을 위한 기도의 모임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신청했던 동역자들과 수료선물로 주신 귀한 책으로 첫발자국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목소리들이 한국의 교육에 선한 영향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문화가 되고 다음세대들로 자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세상의 빛과 소금인 기독교학부모님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강가영 집사

신앙간증

내가 수험생 부모로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몇 년 전만해도 아들과 먹살 잡고 싸우며 지내던 사이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부모 자식의 관계로 바뀔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중간, 기말고사를 보며 아이가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그 때 나와 남편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다. 그저 우리 옆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만을 바라며 두려움을 달랠었던 기억도 난다. 날 좋은 어느 금요일 저녁, 기숙사에서 돌아온 아이가 우리 앞에 앉아 말없이 눈물 흘릴 때, 무너지는 것 같았던 당시 내 마음이 아직도 무겁게 느껴진다.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아이가 말썽 피우거나 반항할 때가 아닌, 힘없이 축 처진 모습을 볼 때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늘 내 처지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수고한다 외치는 사람이었고, 내 커리어와 내 영광을 좇아갔기에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엄마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 대차게 떠나는 모습 또한 길게 봤을 때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와 떨어져 있는 일 년 반은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무기력한 아이를 매일 바라보며 혼자 전사하는 남편에게도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 힘든 때일수록 물리적으로 같이 모여서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 손으로 일궈다 믿었던 걸 내려놓고 일 년 전 이맘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온전히 내가 내린 결정임에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참담하고, 후회되고, 외롭고, 배알이 꼬여 가끔 혼자 눈물 흘린다. 하지만 이걸 아이와 별개로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나의 몫이다. 아이의 무기력,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성적과 생활의 모습들, 급기야 당시 선생님께서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래도 아이를 웃음으로 지켜보며 힘든 마음만 들지 않았던 데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었던 것 같다. 유럽에서 우리가 소위 일컫는 학교에서의 학과 공부 이외에도 충분히 배움을 지향하며 건설하게 살아가는, 실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았기에 걱정을 덜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다. 현재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한숨 쉬거나 낙담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많은 영감을 얻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는,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생각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숨 쉴 틈을 느꼈다. 국제 사회에서 일하고 여러 타국에서도 살아보며, 나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이 참 열심히 일을 잘 해내는 반면, 리더십의 자리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때이다. 그러니까 흔히 맷집이라 일컫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덜 정제되어서도 날 것이어서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열심히만 달리는 모습 외에도 때로는 거리를 두며 관망해 보는, 그리고 바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생각하는 맷집이자 리더십이라 나는 생각한다.

지난 20 여 년간 다국적 조직에서 일하며, 유독 영미권 동료들의 자신감과 자연스러운 모습이 늘 부러우면서 내 모습은 움츠러드는 걸 보며 나는 지금까지도 이 불편한 느낌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식민지 시대부터 그들의 문화가 곳곳에 주류로 자리 잡았고,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탓도 있겠지만,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알아내고 극복해 나가고 싶다. 문득 내가 자라온 교육의 환경이 남이 낸 문제를 맞춰서 성적을 올리는, 틀리면 내게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데에 대해 수치심까지 덩으로 얻는 탓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했다.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는 맞고 틀림이 없는데 아직도 나는 존재하지 않는 정답을 찾느라 정답같이 느껴지지 않는 내 행적을 그다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도 했다. 누군가가 이미 짜 놓은 판에

나를 끼어 맞추는 게 주(主)인 교육. 이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 생각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조리 있게 표현해내는, 보다 건설적인 방면의 교육도 더욱 많아지기를 나는 바란다. 그래야 나를 성찰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만들어 나가는 습관이 만들어 질테니 말이다.

‘엄마 오늘 하늘을 올려봐봐. 너무 예뻐! 이런 걸 누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복을 받았음에 틀림없어. (原, Mom, you should look up the sky. It's so beautiful! I think I'm living a truly God-blessed life!)’라며 나에게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했을 때. 길을 걷다 신기하게 생긴 나방을 발견하고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화기로 초점 맞춰 사진 찍던 모습을 바라본 그 순간.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전혀 알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채 주변의 이야기만 받아들이고는 정작 자신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고 자신 없어 한다면 그게 너무 안타깝다며 우는 모습. 얼마 전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 더욱 눈물이 났으리라 생각한다. 올해 내가 경험한 우리 아이의 이런 모습들은 아마 내 인생에서 나에게 딱 찬 행복을 가져다 준 몇 개의 잔잔하지만 강렬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내가 이 아이의 지금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믿음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건 나와는 다른 이 아이의 특징들을 발견했을 때인 것 같다. 아이의 탁월한 직관이 느껴졌을 때, 직장에서 속상한 일을 털어놓는 나에게 건넨 초철살인의 말들, 짧은 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 나와는 달리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하는 모습. 단순히 ‘머리가 좋다’, ‘말을 잘한다’와 같은 다소 투박한 표현이 아닌, 보다 섬세하고 자세한 그만의 특징들을 발굴해내는 기쁨이 집집마다 있기를 바란다. 그런 기쁨을 부모가 경험하게 되면 숫자로 나타나는 성적과 현재의 모습에만 갇히지 않고 아이를 희망과 기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다. 물론 아이에게 못 미더운 점, 우려되는 것, 앞으로의 걱정거리를 떠올리자면 끝이 없지만, 나는 그런 데로 내 관점을 돌리지 않으려 한다. 그 때는 또 그 때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삶을 즐겨보라고 하시지, 아이들 때문에 매일의 의무와 수고의 연속인 모습을 멀리서 지켜만 보는 분은 아닐 거라 나는 믿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일 4:18)’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기에 때때로 드는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지내는 이 시간동안 두려움에 압도되고, 지배당하며 지낼 수는 없다. 사회에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래서 뭔가를 더욱 대비해야 한다고 외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 그 자체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You only live once, 율로여서 끝 간데없는 쾌락과 나만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살아보기에 가장 나답게 살아보는, 그런 각자의 모습이 모이면 이 세상은 얼마나 재미있고, 활기찰까 기대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참 좋았더라고 (창 1:4, 10, 12, 18, 21, 25, 31) 하신 모습이지 않을까? 이 모습은 누가 뒤쳐지면 애써 외면하며, 행여나 내가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런 태도와는 가히 대조적이다. 내가 그랬다. 하지만 늘 열심과 수고로 달려온 내 안에는 만족과 확신이 부족했다.

나와 다른 우리 애의 모습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를 느꼈듯, 기독교부모라 칭하는 우리부터 이런 눈으로 남들은 힘듦의 정점이라 하는 수험생활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격려받은 아이들이 남에게도 그런 격려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이세원 집사 / 5교구

평남노회 선교찬양축제

오직 주님께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평남노회 찬양제가 2023년 10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방주교회 본당에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라는 표어로 열렸다. 코로나로 4년 만에 평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와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찬양제에는 7개 교회에서 참여하였는데 주님의교회에서는 여전도회

연합 ‘참 빛나는 찬양대’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연습하여 은선희 집사 지휘로 “주는 나의 목자”로 참여하였고 호산나 한국 무용부에서 특별 출연을 하여 찬양제를 축하해주었다.

함줄함울

평남노회 선교찬양축제
소감

주는 사랑의 왕, 나의 목자

〈주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평남노회 남선교회의 선교찬양제 초청에 주님의교회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예배 시(6월14일) 여전도회 회원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기로 하여 7월 12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듯 젊고 재치있는 파트장을 중심으로 파트별 카톡방을 개설하여 음원영상을 통해 개인별로 미리 연습을 하고, 8월 30일부터 지하 찬양대실에서 60여명의 단원들이 본격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연습 과정 과정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단원들의 얼굴에 기쁨과 아름다움이 넘쳐나 오히려 지휘자인 제가 더 큰 은혜를 입어서 시작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한마음이 됨에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시편 23장이 모티브가 된 “사랑의 왕, 나의목자”라는 곡도 주시고, 반주자의 헌신과 노력, 시작부터 끝까지 잘 이끌어 주신 여전도회장님의 섬김, 걸그룹의 매니저로 연습 때마다 오셔서 기도와 격려로 함께하신 배운환 목사님, 간식으로 금일봉으로 마음을 모아 주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특히 담임목사님의 샌드위치와 음료수는 연습 중 최고의 당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축제 당일 ‘참 빛나는 찬양대’에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찬양 축제 후 어느 분이 올려주신 글 중 “뜻밖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는 글에 더욱 감동을 받았고, “헤어짐이 아쉽고 끝났다니 더욱 아쉽다”는 댓글은 또 하나의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인생은 회자정리라 했습니다. ‘참 빛나는 찬양대’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의미를 찬양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선희 권사

늘푸른대학
가을나들이

매일 우리들 이렇게 소풍가는 날처럼 살자

2023년 늘푸른대학 가을나들이는 10월 17일(화) 수원행궁과 수원화성으로 다녀왔다. 버스 두 대로 나누어 타고 맑은 날씨에 한 시간을 달려 수원행궁에 도착을 해서 무술시범을 보며 행궁을 둘러보고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대한 효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순두부로 점심을 먹은 후 어가를 타는 팀과 수원 화성을 걷는 팀으로 나누어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역사 탐방을 하며 늘푸른대학 학생들과 스태프가 함께 어울

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께한 모두는 “우리 진짜 영락없이 초등학생 소풍가는 모습이네요?” “친구야, 매일 우리들 이렇게 소풍가는 날처럼 살자?” “참 고맙네, 늘푸른대학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놀어도 가고 익어도 가니 어쩔 요렇게 예뻐 까요?” 파란하늘 광활한데 놓고 푸른 가을날 시월의 어느 날 멋진 외출의 추억 오래 오래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 귀한 가을 소풍이었다. 함줄함울



안수집사회
산상수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난 10월 21일 토요일 안수집사회 부부와 산상수훈(매월 3째주 토요일 산행모임)이 함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1:31)”라는 주제로 가을 나들이를 가평 잣향기 푸른숲, 양평 청란교회 2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부터 내리는 비가 염려스러웠으나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리라 믿고 목적지로 향하였습니다. 가을나들이 차량들로 길이 엄청 밀려 예정보다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비는 그치고 너무나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에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산행길에 올랐습니다.

2시간여 피톤치드 가득한 잣나무숲길을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느끼며 주의 형제, 자매가 함께 산행 후 산중턱 전망대에 이종성 목사님의 인도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편 8편)’의 말씀을 은혜로 감동하며 받고, 함께 찬양하며 창조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진도 촬영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산 후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산행으로 배고픈 시간이라 맛이 더한 것 같습니다.

오후 행사로는 양평군에 위치한 청란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형교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 10대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따라 산중턱에 위치한 교회에 도착하니 담임이신 송길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설립과 특별한 영성으로 설계된 교회당 이야기, 교회 사역 소개, K-영성, 기독교인의 마지막 장례문화의 새로운 제시 등의 말씀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빛에 따라 교회 벽면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인도 하시는 모습, 소풍 가는 날(생의 마지막 나들이), 새롭고 경이로운 장례예배 제안(도착하기 2시간 전에 장례예배가 있어 생생한 현장을 봄)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청란교회 부목사님의 인도로 원형교회 안을 구경하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파이프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손경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기념촬영, 종각구경, 타종, 성경의 벽, 수목장,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성경과 신앙에 대하여 자세히 듣고, 100여 개국의 성경 전시물, 생의 마지막 나들이 모습을 전시한 사진을 감상 후 버스에 올랐습니다.

짧은 하루의 여정이 아쉬움으로 남는 일정이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다시 한번 가보고픈 곳입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곡인 은혜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나들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글함글

목사안수
소감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15년 전, 전도사라고 처음 불렸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또 그러한 설렘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제 삶을 관통하여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났으나 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말쑥꾸러기였고 공부도 매우 싫어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300등 안으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학업은 부진했고, 장래의 비전도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내에 분열이라는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학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재수를 결심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 속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하는 공부, 재정은 부족하고 성적은 오르지 않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명을 더욱 뚜렷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스스로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언제나 함께하시고, 힘들 때마다 곁에서 붙잡아주시고 나아가 소명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을 고백하며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사랑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돌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행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준범 목사

겨자씨이야기
7교구

늘 힘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지난 4월 3일에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는데 뇌가 붓고 한 쪽으로 치우쳐 4일 뒤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의 수술 모두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저에게 이런 큰일을 겪게 하시는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더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교제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사탄은 의사의 입을 통해 절 흔들려왔습니다. 늘 반복된 불안과 낙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무너질 때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쓰러짐으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찬양가사처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남편과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6월 초 두개골 봉합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다음날 저녁에 의사의 수술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뇌가 아직 부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취소 소식에 낙담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 CT를 다시 보게 했고 주님의 행하심으로 남편을 또 살려주셨습니다. 남편을 3번이나 살려주신 하나님...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면

제 옆에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손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9월 초 남편은 5개월 동안 열어두었던 두개골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염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의미요... 평안할 때의 내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남편은 현재 갓 신생아를 벗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직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병원전원, 재활, 산재처리)이 많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많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늘 힘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버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년에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말씀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경숙 집사 / 7교구

교사일기
아기정원

하나님의 선물, 아기정원

썩트네 썩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쭈욱~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이 찬양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이다. 이 찬양을 올릴 때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 뼘 남짓한 아기들의 몸통이 꼬물꼬물 움직이다 하늘로 쭈욱 오른다. 엄마가 힘껏 안아 올려주기 때문이다. 아빠와 함께한 날이면 아기는 더 신나게 하늘로 날아오른다. 엄마는 힘쓸 준비, 아기는 하늘로 점프할 준비, 교사는 환호와 기도를 준비한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듯 지혜와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나는 세 아이의 엄마다. 성인이 된 두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나의 미약함은 급속도로 커지고 나의 마음은 요계벧의 마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나보다 더 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평생을 책임져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나도 한때는 아기정원 엄마였다. 두 돌 무렵의 아들은 엄청난 호기심의 소유자였고 예배시간에도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모태신앙인 나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참 힘들었다. 하지만 아기정원에서 만큼은 아이가 돌아다녀도 평안했다. 웃으면서 잡아 앉힐 수 있었다. 우리 아들은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이제는 친구 엄마들의 칭찬 전화가 어색하지 않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경험담이다.

아기정원은 18~40개월의 영유아들이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주중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다. 아기정원에서의 시간은 엄마와 함께함으로 신뢰를 형성하게 되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또한 다중지능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목요일마다 아기정원에 출석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한다. 아침에 아기와 함께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너무 감사하다. 아기들과 아기정원에 오시는 조부모님들을 존경한다. 신앙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나도 손주가 생겨 18개월이 되면 아기정원에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아기정원에 십 년 넘게 설레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은혜이다.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나는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아기정원에 간다. 내게 아기정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아기정원 아기들을 온 맘 다해 축복한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날마다 사랑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이들 마음에 썩튼 믿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해주세요.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교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윤희 집사 / 아기정원



교회사용설명서

설문조사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설문조사’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통계청에는 ‘설문조사’에 대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를 주관식과 객관식(단일,복수,선호도) 유형의 질문과 응답 항목을 작성하여 설문 대상자에게 응답 요청을 보내어 설문 대상자가 설계된 설문지에 응답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통계분석에 활용하는 일련의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대개 익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정직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목회 현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에서 실시했던 종교의식 설문조사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 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응답자 1,329명 중 20~30대가 전체의 89.3%를, 개신교인이 전체 응답자의 67.3%를 차지했던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교회 대형화’(16.3%)가 가장 먼저 꼽혔습니다. 이어서 ‘불투명한 재정 구조’(14.1%), ‘지나친 전도 활동’(13.2%), ‘과도한 교회 건축’(13%), ‘세습’(12.7%), ‘교회 내 계급 문제’(12.2%), ‘목회자 자질’(11.4%) 등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이런 의견들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설문조사는 현실을 통계적으로 진단하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교회에서도 설문조사가 드물지 않게 실시됩니다. 보통 항존직 선거나 담임목사 청빙, 정관의 개정과 같은 특별한 기회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전교인 설문조사는 보통 교회 전반의 실태와 교인의 소망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길교회에서 2006년에, 대구 평강교회에서 2007년과 2010년에 걸쳐 전교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회 비전을 새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2018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

시했었습니다. 교인 기본사항, 교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10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설문조사는 3주에 걸쳐 2,218명이 응답하여 전교인 수 대비 25.4%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는 교인의 의견을 교회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5%, “적극적이며 주기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4%나 되었습니다(<함글함글> 400호, 2018. 9. 30.).

이후 5년, 코로나19와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사회와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주님의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주요 목회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은 올해 전교인 설문조사는 지난 5년간의 변화와 추세를 살펴보고, 미래를 향한 교회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용 방법

2023년 전교인 설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설문 문항은 2018년 설문조사와 같이 교인 기본사항, 교회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교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나, 문항의 수를 모바일 설문 응답자의 편의성을 고려, 약 30%를 줄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2018년과 달리 모바일(스마트폰)로 답하도록 진행되며, 등록 교인에게는 문자로 설문조사 링크가 안내되고, 미등록 교인이나 문자를 받지 못한 교인은 곳곳에 붙인 포스터와 설만한물가에서 안내하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설만한물가에서 제공하는 종이 설문지를 작성,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이번 설문조사도 5년 전과 다름없이 교회 내외부 환경의 변화와 교인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교회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소망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400호



설문조사참여 링크

2018 전교인 설문조사 보고서

주님의교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5년(2013~2017년)에 걸쳐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5년 동안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8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적과 의의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설문 방법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설문 결과 요약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어울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어울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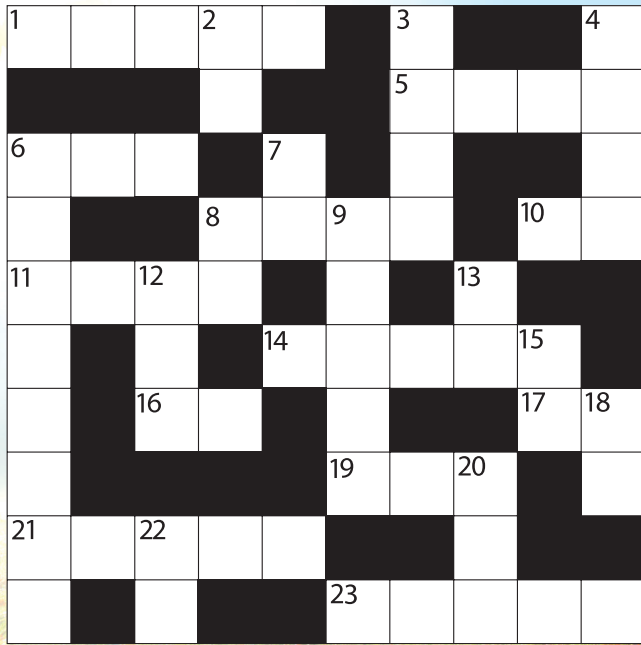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교인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시편 편

이번 호에는 <시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150편이 수록된 책입니다. 시편에 수록된 시들은 대부분 다윗이 지었지만, 아삽, 고라의 자손, 솔로몬, 모세, 에스라인 헤만과 에단이 지은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73호 음기 편 정답



가로 힌트

1.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 ○○ ○○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 1:1)
5.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 ○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 37:11)
6.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해발 765m의 언덕. 초기에는 예루살렘 동쪽 능선을 부르다가 후에는 예루살렘 전부를 상징적으로 부르는 말로 쓰였다. (시 48:2)
8. 죽음의 문턱.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 ○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 9:13)
10. 풀리지 않는 문제로 걱정을 하며 속을 태움. "내 눈이 ○○○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시 6:7)
11.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성경에서는 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시 10:12)
14. 하나님의 공평한 정의를 통하여 죄와 위험에서 구해지는 것.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 ○○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시 71:15)
16. 사람의 목소리. "내가 내 ○○○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 71:15)
17. 부끄러움, 또는 부끄러운 일.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 22:5)
19. 서로 맞서 겨루는 대상이나 행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며" (시 2:2)
21.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입장에서 부르는 말.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시 18:2)
23.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 ○은 망하리로다" (시 1:6)

세로 힌트

2.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 5:7)
3.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는 말. "여호와께서 아굽의 모든 거처보다 ○○○ ○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 87:2)
4. 하나님의 한없이 깊고 너르며 자비로움을 뜻하는 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 23:6)
6.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축복받은 나무. "그는 ○○○○ ○○ ○○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3)
7. 망해서 소멸됨. "범죄자들은 함께 ○○○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시 37:38)
8. 주로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분포하는, 가장 상위의 포식자. 만화 <밀림의 왕자 레오>(1950~54), 영화 <야성의 엘자>(1966), <라이언 킹>(1994), <고스트 앤 다크니스>(1996)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물이다. (시 7:2)
9. 의로운 사람들의 세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 ○○에 계심이로다" (시 14:5)
12. 마음을 하나로 합친 것. "그들이 ○○○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시 83:5). 1981~87년 활동하면서 <갯바위> 같은 히트곡을 발표했던 혼성 듀엣의 이름이기도 하다.
13. 간절히 구함. "여호와께서 내 ○○○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 6:9)
15. 나를 적대하며 괴롭히는 사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 17:9)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18. 재산을 쌓음. "사람이 ○○○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 49:16)
20. 어떤 사람의 자녀와 그 후손들. "이방 ○○○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리로다" (시 18:45)
22. 땅에서 고개를 들면 보이는, 넓고 텅 비어 있는 공간. 윤동주의 유작 시를 모은 시집(1948)의 제목이 이 단어로 시작한다. (시 8:1)

전교인 신앙사경회

주님의교회 창립35주년

*감사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담임목사
KOSTA 국제본부 감사

저서
지금 변화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오늘 세움게 살 수 있는 이유를 말씀으로 산다
불행어주상, 보호하심, 오늘을 견디라 등 다수의 저자

11.14(화), 15(수)
7:00PM 대예배실

창립 35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2018년 이후 5년만의 전교인 설문조사
교회 환경의 변화와 교인실태 파악, 교회 미래 정책에 반영

올해에는 **모바일**로 시행합니다. **마통록 교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세요♡

설문조사 하는 법

1. 19세 이상 등록 교인
▶ 22일 아침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 발송 ▶ 링크 누르면 바로 설문지 작성 가능!
2. 마통록 교인이나 문자 못 받으신 분
▶ 왼쪽 QR코드 휴대전화로 찍어 설문 참여 ▶ 설문지는 한 번에 끝까지 작성!
3. 휴대전화 설문 참여 어려우신 분
▶ 설문지함에 종이 설문지 작성 ▶ 종이 설문지는 29일까지 회수!

2023.10.22.(주일) ~ 31.(화)
문의: 설민한물가

수험생을 위한 부모기도회

어초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 만한 곳 인도하시니 도다. 시편 23:1-2

주의 손이 불드시네

2023.10.21 ~ 11.11

일시 10/21, 10/28, 11/4(토) 오전 6:30 ~ 7:30
11/11(토) *11/11은 자녀축복 새벽기도와 함께 진행됩니다.

장소 중예배실 및 대예배실(11/11) (한정 및 온라인)

대상 수험생을 둔 부모, 교사

1주 10/21	2주 10/28	3주 11/4	4주 11/11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자녀세대의 현실) 임경순 목사 청소년술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부모세대의 현실) 한사영 목사 가정사역원	불리주시고 채워주시네 (선배과 같다) 장구민 목사 청년부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내려놓음) 김화수 목사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부모님의 신앙이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반기
자녀축복 새벽기도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매월, 부서별 주관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자녀들과 선생님들은 찬양 연습 후 찬양대에서 함께 주세요.
2. 자녀축복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새벽 굿즈"가 준비됩니다.
▶ 예배를 마친 후 로비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3.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응원 상품들이 전달됩니다.
▶ 하반기(9,10,11,12월) 자녀축복 새벽기도회에 모두 참여하여, 4개의 새벽굿즈를 다 모은 친구들에게 전달됩니다.
▶ 로비에서 출석체크를 잊지 말아주세요.

날짜	9.9(토)	10.14(토)	11.11(토)	12.9(토)
주관	유소년술	청소년술	수능기도회	유아술

생각해보기

해피 할로윈? Happy Halloween?

2023.10.29

† 할로윈은 무슨 뜻인가요?

할로윈(Halloween)이라는 말은 Hallow라는 Holy(거룩한, 성스러운)라는 옛 영어이고, Eve(ning)이라는 말은 전야라는 말이에요. 할로윈이라는 말은 "Allhallows Eve(ning)"이라는 말, 즉 거룩한 전야라는 뜻입니다.

† 즐거운 축제 아니에요?

매년 이맘때면 놀이동산, 학원, 백화점 등에서 야심 차게 할로윈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이나 유령을 친숙의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철저한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축제입니다.

†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켈트족 달력으로 신년은 11월 1일이고,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므로 가을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하하며 풍요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날 밤 모든 악령과 악마를 몰아내고 새해에는 행운과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렸어요.

10월 29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요!

2024년은 종교개혁 551주년이 되는 해예요. 마르틴루터는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 목숨을 걸고,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해요.

교회일정

10/29(주일)	종교개혁주일
11/1(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8교구)
11/5(주일)	성찬주일

알립니다

1. 2023년도 전교인 대상 설문조사 안내
일시 : 10/22(주일)~31(화)
방법 : 링크(문자), 종이 설문지(설명한 물가, 주일에 한함)
2. 통일을 여는 기도회 장소 및 일시 변경
장소 : 1층 제3집회실
일시 : 매월 첫째 주일(11/5) 오후 2:15
대상 : 주님의교회 전교인
3. 전교인 신앙 사경회
강사 :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장소 : 대예배실
일시 : 11/14(화)~15(수) 오후 7시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바랍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